

로컬플러스

김제시, 국·공유지오류 일제정비

김제시는 부동산종합정보 민간개발에 따른 부동산종합증명서(일사편리)제공의 공신력 제고 및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국·공유지 오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공유지의 잘못된 지목과 관리점을 바로잡고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밟힌다.

김제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비대상 102,995건 중 22,767건에 대해 정비를 끝낸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합병 2,105건 ▲지목변경 11,196건 ▲ 관리점 명칭 정비 9,466건 등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일치되어 지적공부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국·공유지 재산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일택 민원소통과 과장은 "정확한 부동산정보제공에 따라 각종 토지정책 수립에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경찰서, 유관기관 합동 훈련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선)는 지난 15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 북한 위협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안군청에서 '독수리(FE)훈련'의 일환으로 경찰 군부대, 소방서 유관기관 합동 모의훈련(PTX)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부안경찰서, 105연대 1대대, 소방서 등 3개 유관기관에서 참가해 부안군청 내부 대행군 침투 관련 민간 인 대피 및 출입통제, 대행군 검거 등 기관별 부여된 임무 수행 훈련이 실시됐다.

강현선 서장은 "北의 미사일 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훈련으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한 부안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주민복지과 유관기관간담회

김제시 주민복지과(과장 남궁원호)는 17일 사회복지유관기관(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김제지역자활센터)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늘리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종사자들과 소통하여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주민복지과 간담회는 2015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돌아보고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제정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2016년에 추진할 신규사업 및 사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하여 각 단체장과 격이 없는 토론으로 행정의 허리상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김제=곽노태기자

변산반도국립공원 불법산행 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체)는 오늘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원 내 주요 불법·무질서행 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산행, 단체(버스) 쌍승이 식물채취, 공원 회장실·주차장 내 흡연, 하섬갓벌 해양생물 채취 행위 등이다. 특히 공원사무소는 날씨가 풀리면서 셋길(바베큐탕방로) 출입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셋길 구간에 대한 기획단속을 할 예정이며,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신약회(단체) 모집산행에 대하여는 계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 개장식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과 시의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김준영 대표와 임직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 개점

식당·정육점 갖춰 정읍 자랑거리 고품질 명품한우 참맛 홍보·판매

정읍 대표 축산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이 17일 문을 열었다.

효자동 전북도청 앞에 자리한 전북도청점은 443㎡(1.2층) 규모로 대규모 식당과 정육점을 갖추고 있어 전주시민들에게 풍미가 깊고 윤례인산이 풍부한 명품한우의 참맛을 제대로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장식에는 김생기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장과 시의원,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 김준영 대표와 임직원 등 모두 100여명이 참석해 개장을 축하했다.

단풍미인한우는 정읍시가 지원하는 대표 먹거리이다.

정읍시와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은

대표 축산브랜드인 단풍미인한우를 전국 최고의 명품한우로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우량 종모우(KPN) 정액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우비육우 전용 TMR(섬유질배합사료)사료공장을 준공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이탈리안 리이그리스, 청보리, 베지)를 주된 원료로 수분함량이 25~30%인 TMR사료를 생산 공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정읍단풍미인한우 브랜드는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2011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대통령상, 2015년 국무

총리상), 소비자 시민모임으로부터 우수 축산물 브랜드로 인증 받고 있는 등 우수 축산물로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시는 이러한 토대 위에 현재도 대도시 복합유통센터 지원, 한우자거래 활성화 지원 등 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김생기 시장은 "단풍미인한우 전북도청점을 거점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고품질 쇠고기인 단풍미인한우의 사육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쇼핑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한우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현장방문 소통행정 펼쳐

김생기 시장이 새봄 시작과 함께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이를 간주요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직접 보고, 듣고, 살피는 현장행정'을 펼쳤다.

김 시장은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현장을 확인하고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행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기상인체험교育관 건립에 따른 적정부지 선정을 위해 기상청 인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백제 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및 정읍 산학연협력지원센터 건립 ▲구절초테마 공원 사계절 꽃동산 조성 ▲화물선연결도로 개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소성 식품특화단지 조성 ▲기축분뇨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지원화 시범사업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 ▲내장산 유스호스텔 대행 복구 현장 등 11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각 사업장의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후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 부서장과 관할 읍면동장, 공사 관계자, 시민들과 함께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

눴다.

김 시장은 "지난 동절기 때 중단됐던 사업들이 본격 착수되는 시기이므로 해당 사업장별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하고 세심하게 챙기고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해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 파악하여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면서 시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농기센터, 식품가공기능사 교육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에서는 수입 개방 이후 전반적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함에 농·축·수산물 제조 기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가공기능사 학습자는 농·축·수산물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를하여 식품재료의 저장성, 안전성, 영양특성, 편의성, 가공성등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기지를 높이는 수단이다.

2월초에 교육생을 모집한 후 농업인 33명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기능사 교육을 3월 3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13:30에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식품가공 전문가 양성 및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영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식품가공기능사 교육은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이론 교육은 3월 31일까지 미루리를 하고 4월 29일 필기시험에 응시하게 되며 이론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할 수 있는 5월 21일부터 6월 3일

/김제=곽노태기자



유치단은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및 오만 스카우트연맹 등을 찾았습니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새만금에서

김종규 부안군수, 아프리카·중동서 유치 홍보

김종규 부안군수와 송하진 전북도지사, 험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등 2023 세계잼버리대회 부안 새만금 유치단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아프리카 가나·케냐와 중동 오만 등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 군수 등 유치단은 지난 10일 가나 아크리에 도착해 아프리카 스카우트데이 행사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기금 마련 리션션 행사에 참석하고 아프리카 스카우트연맹 및 오만 스카우트연맹 등을 찾았습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꿈, 열정, 비전을 펼칠 수 있는 부안 새만금에 세계스카우트의 모든 청소년들을 초대한다. 2023년 새만금에 꼭 오셔서 여러분의 꿈을実현하고 사회를 바라보게 이끌어가는 기준이 돼 달라"며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스카우트 창시자인 영국의 베이든 포우웰경의 기념관과 묘지

/부안=이옥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Changwon City, South Korea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Bunjang Oji Wine

Gangsanmyeongju's Bunjang Oji Wine